

송원초 · 대성초에 명상숲 만든다

전주시, 6월까지 3억원 투입 수목 · 산책로 · 편의시설 등 설치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공간 · 컴퓨터로 2010년부터 23개교에 조성

전주시는 송원동 송원초등학교와 대성동 대성초등학교에 오는 6월까지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명상숲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의 운동장과 담장,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해 숲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금평초등학교 등 23개교에 명상숲이 조성됐다.

시는 송원초와 대성초에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목을 심는 동시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벤치, 퍼즐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자 컴퓨터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명상숲 사후관리를 위해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4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녹음이 부족한 도심지역에 녹

지공간을 확대하고 주민들을 위한 녹색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상숲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학교 부지 내 다양한 수종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학생들이 숲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다양한 이점의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하세요”

전주시, 적극 홍보... 간편 납부 · 인력 · 예산 절감 · 환경보호 측면에도 도움

전주시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알뜰톡 등 스마트폰을 통해 받아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기존 종이 고지서에 비해 다양한 이점이 있다.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는 경우 기존 종이 고지서의 분실 및 배달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미수취로 인한 각종 민원을 줄일 수 있다. 또 고

지서 1장 당 150원,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3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여기에 연간 130만 건, 7억원에 달하는 고지서 우편발송 예산과 발송에 드는 노동력도 줄일 수 있으며,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송달이 가능하고, 고지서가 앱에 저장(도달)된 때 송달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가능한 모바일 앱으로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과 금융 앱(광주, 경남, 국민, 금융결제원,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새마을금고, 신한, 전북, 케이뱅크,

하나,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총 18종이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배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자생단체 등에도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종이고지서 절감을 통해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정원 조성 노하우 전수 단체 공모

29일까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위해 특강 진행할 수행단체 모집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오는 29일까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정원 조성 노하우를 전수할 역량 있는 단체를 공모한다.

수행단체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병충해 방제, 식물배식·번식, 토양관리 등 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정원문화특강을 하게 되며,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공모 신청 자격은 환경·생태보전·문화 관련 시민교육이나 시민참여 정

책개발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는 전주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다. 단, 유사 중복사업으로 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희망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전주시청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정원문화산업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4층)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정원문화산업팀(063-281-2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시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이해도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뒤 선정된 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계자는 “정원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이야기가 담긴 정원문화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제2의 n번방’ 운영 · 성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 7년 구형

검찰이 ‘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일명 ‘피싱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이 13·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평생 고통받아야 할 상처를 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법정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준다는 제안에 혹해서 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주범은 아니다”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준 것이 다였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의 말로도 면소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고인이 대학교 졸업을 해야 하고 이제 20살인데 중형으로 처벌된다면 앞으로 피고인의 인생은 더는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될 수 없을 것,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인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군 등은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탈취했다. A군 등은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 2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은밀한 사생활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협박,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받아냈다. 이들이 요구한 성 동영상은 퇴폐적이고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보낸 영상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뉴스1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놀이 꾸러미 무료 나눔

우리놀이터 마루달 개관 100일 · 설 맞아 100개 한정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놀이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우리놀이 꾸러미(전통놀이 도구)를 무료 나눔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내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우리놀이 꾸러미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한옥마을 내 우리놀이터 마루달은 지난해 9월 개관해 전주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중이다.

‘우리놀이 꾸러미’는 마루달 개관 100일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맞을 설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즐기고, 유쾌한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공기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떡치기 ▲실뜨기 놀이를 할 수 있는 우리놀이 도구 5종류와 놀이 스티커가 들어있으며, 각 놀이 도구마다 친환경 소재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제작됐다.

이번 행사는 꾸러미 100개 한정(선착순마감)으로 우리놀이터 마루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내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우리놀이 꾸러미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

달에 직접 방문, 현장에 비치된 엽서에 개관 100일 축하 메시지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게임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우리놀이 꾸러미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고 즐기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길 바라며, 나아가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중심으로 우리놀이문화의 보급과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놀이 꾸러미 나눔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놀이터 마루달(063-231-15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